‘나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냐?’

(신명기 30:1~20)

1.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하므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2.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나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나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이 질문을 스스로를 향해서 푸념처럼, 허무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던지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의 공부는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교수와 함께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위논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써가지 않으면 교수는 지도해주지 않습니다. 자율성이 많이 주어져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10년이 지나고 14년이 지났는데도 학위 논문을 쓰는데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한 지 1년도 못돼서 형편상 혼자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여지없이 하는 말이 ‘나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형편이 나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 한심하고, 지금 마음의 상태가 너무 허무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일이 없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삶의 형편이나 처지가 내 마음과 전혀 따로 놀 때에, 무엇하나

즐거움이라고는 없을 때, 하고 있는 일의 성과가 좁쌀만큼도 나타나고 있지 않을 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데 몸이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곳에 와 있을 때에 여지없이 하는 말이 '나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성찰의 능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더 많은 경우는 자기 반성적 자기 성찰적 푸념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어울리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일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러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복지를 살고 있으면서 마음에 채워지는 항상 만족과 기쁨, 쉬지 않는 기도와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삽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정과 사랑인데, 다른 사람이 돈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올바른 대상을 정했을 때 사람들에게서 열정과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데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증언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 속마음으로 '자매님! 형제님! 왜 거기서 그러고 계십니까?'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릉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고, 너무 힘들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뻐서 찾아오시면 저도 덩달아 기뻐지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십자가 복음에 입각에서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해드릴 뿐인데 참 대단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삶을 해석할 때에 나타나는 힘이 열 가지, 백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십자가 복음에 입각해서 느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문제가 다 걷히게 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바뀌어서 가시는데 십자가 복음의 힘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그러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힘드시면 찾아오세요. 기도하면서 대화를 해야지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앞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복이 임하고 준행하지 못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산을 하고 보니 복지에 저주가 임해서 쫓겨 간 먼 나라에서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네 쫓겨 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늘 가'라는 말은 아주 까마득히 멀리 간 지평선 끝을 말합니다. 그 지평선의 끝은 하늘에 닿아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가게 된 상황을 전제하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선민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앗수르에 망한 북 왕국 이스라엘은 강제 이민을 가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항상 기쁨이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인가 추구하고 뜻하는 바가 있어서 매진하는데, 세상일도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범사가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지금 주어져있는 상황이 내게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세상 가치에 매여서 세상 것을 얻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서 몸부림치면서 원망이 가득차고 불평이 가득 차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에서 하늘가까지 멀리 떨어져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이 불리는 선민입니다. 그럴 때에 '지금 거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고 계십니까? 누가 그러라고 했기에 그러고 있습니까? 왜 마음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까? 왜 열정과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고 복지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라고 묻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선민에게는 저주의 상황이 주어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땅 한 마지기가 없고 재산 한 푼이 없는 사도 바울이 왕과 총독 앞에서 행26: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고 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당신들은 왕이고 총독으로 없는 것이 없지만 저주의 땅에 머물고 있으므로 복지로 들어오라'는 얘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실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돌에 맞아죽는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는 복지가 임할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서 깊은 잠을 주무시는데 풍랑 속에서도 복지는 주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매를 맞고 차꼬에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 찬양이 울려나옵니다. 복지는 객관적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에 매여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사랑과 열정이 식었다면 내 마음이 복지에서 하늘가 까지 멀리 떨어져나간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음이 삶의 현장에서 육체로 만나는 상황과 육체로 만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깨닫는 마음'은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얼마나 좋은 존재라는 것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미쳐버릴 정도로 대단히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마음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항상 기쁘고 쉬지 않는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지로부터, 하늘가까지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고 돈이 무지하게 좋은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좋다고 마음에서 깨달아진 것입니다. 몇 백억, 몇 십억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 것이 꿀맛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

상 것들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좋은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귀에 들려옵니다. '너도 돈 벌수 있고, 너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인기 얻으며 살 수 있고, 너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세상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따라 한 걸음씩 가다보니 어느새 복지로부터는 하늘가까지 멀리 떨어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민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루에 열 번 부르고 백 번 불러도 마음이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게 마음에 체감되질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도 우선적으로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이 관심대상이 되셔야 한다는 당위성을 위한 증거들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우선이 되셔야 하는데, 의식주의 문제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마음의 대상이 되셔야 하는데 이것을 못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민들은 깨달아지는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 등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광야에서 의식주를 위해 단 한 방울의 땀을 흘리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셨다는 증거가 먼저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생각으로 붙잡고 마음이 깨닫고 있는 의식주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굶어 죽고 헐벗어 죽어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인격적 사랑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모습에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과 같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내 인생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취직을 하느냐 못하느냐, 결혼을 하느냐 못하느냐'라는 중대사로 다가오지만 이것들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완성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들인 결혼문제, 취직문제, 승진에 대한 계획도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으로 등을 돌려야 하는데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출애굽의 상황처럼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지금 처해진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인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지금 상황에 대해 체감하고 깨닫는데, 생각을 가지고 체감되는 세상에 대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선으로 생각의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질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세상을 체감하고 세상의 가치를 깨닫는 정도만큼 복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은 증거에 근거된 생각의 믿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으로 체감하는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게 항상 기쁨이 있고, 사람 사는 것 같은 열정과 사랑이 생기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쩔쩔매는 돈 문제가 해결 되어도 궁극적인 기쁨과 감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우선으로 붙잡을 때에 가능해진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어떤 행동 전에 마음과 생각으로 해야만 하는데, 이것을 못한 채 다들 세상을 느끼고 세상의 가치를 깨달아버리고는 복지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8절에서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에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소설가의 글속에 소설가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을 증거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행위의 규범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인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말씀의 총화이고 말씀의 결론이고 말씀의 완성인데, 십자가 사건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끝이 나면 '내가 의롭게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이 세상으로 다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십자가가 말씀의 완성이므로 말씀을 바라볼 때에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옮겨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한 그 말씀이 뜻하는 바대로 우리의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 채, 마음은 돈에 가있고 세상 가치에 가있으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은 십자가 생활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만 우리 시선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를 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십자가로 모인 우리 마음의 시선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서 끝나버립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나중 이야기로 미뤄버리고, 마음으로는 지금 당장 필요한 세상을 느끼고 세상의 가치를 깨달으므로, 십자가에서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마음 놓고 돈을 구하고, 마음 놓고 사업의 성공을 구하고, 마음 놓고 건강을 구하고 마음 놓고 이 세상 것을 구해갑니다.

그러므로 복지로부터 멀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자기 멋대로 만들어내는 사기꾼들이 말하는 거짓된 희망만 남게 되어서 한없이 멀리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니 매일 하는 기도가 지금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같은 상황에서 왕에게 '나처럼 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몇 백배는 세상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저주입니다. 세상 것을 갖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가 저주입니다. 또한 세상 것을 갖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저주입니다. 복지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버린 것인데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제시된 증거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 깨닫고 느끼는 마음을 죽이고 생각만으로 라도 하나님을 향하려고 애를 쓰는 믿음을 가져야합니다. 행위 이전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의 말씀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아기들을 할례 할 때 고추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처럼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포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감증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이고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좋으심을 느낄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제시하신 증거에 근거해서 생각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 믿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하늘에 있는 거룩함으로, 즉 더 좋을 수 없을 만큼의 좋음을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차꼬에 채워져서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도 찬양을 한 것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늘이 얼마나 좋은지를 마음으로 깨달아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것입니다. 복지를 찾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뭘 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면서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좋으신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 못 번다고, 목회의 사람 수가 늘지 않는다고, 예배당을 짓지 못했다고, 자식이 좋은 대학 못 들어갔다고, 내 몸에 병이 났다'고 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스러워하고 있느냐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지를 다 떠나서 하늘가 까지 멀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단순히 심리적 차원에서는 현재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도 복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멋대로 세상을 느끼며 세상을 깨달아서 세상이 좋아서 헐떡거리면서 세상을 쫓아간 삶의 결과가 예를 들어 일수 돈을 쓰고, 고리대금을 써서 지금 쫓기고 있고, 3년째 취직이 안 되고 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길가로 쫓겨날 수밖에 없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회사에서는 나 때문에 문제

가 생겨서 지금 도저히 기뻐하려야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하려야 감사할 수 없는 현실적 장애들이 잔뜩 쌓여져있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지 못해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장애가 되는 일들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없습니다. 고리대금업자에게 쫓긴다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숨으세요. 그리고 십자가 붙잡고 고리대금업자에게 쫓기는 그 현실에 대해서 숨어있는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에서도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전쟁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해서 관심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 책임지시겠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고리대금업자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취직을 몇 년째 못하고 있더라도, 선을 50번을 봐도 퇴짜를 맞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너무 인생이 힘들고 장애가 크더라도 잠깐이라도 사람이나 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곳으로 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이 느끼고 있는 체감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말씀의 총화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십자가 기억하면 말씀 모두를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동선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이 많은 삶의 장애들을 다 뒤로하고 이 모든 장애들이 억누르는 무게로부터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하늘로 갑니다. '주님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세상에서 그토록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쳤던 마음이 죽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주님 승천하실 때 내 마음을 데리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이 머물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늘가 까지 멀리 갔던 상태에서 아버지께 돌아오면,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삶을 심리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 현상적 차원에서 아주 작살이 나버린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복지로서 치유해 나가실 것이고 회복해 나가실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고,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하신 복지로 귀환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께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지금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말씀의 총화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그곳을 지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만 마음이 머물러 있게 하심으로 나로 인해 깨어진 이 땅이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복지가 재건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